Edit

Who We Are 05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 (고린도전서 2:9-12)

설교 요약

우리는 모두 다른 성격과 다른 삶을 살아가지만, 마음 깊은 곳에는 똑같은 질문을 품고 살아갑니다.

- "나는 왜 태어났을까?"
- "나는 어떤 존재인가?"
- "나는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

세상은 이런 질문 앞에서 "내 안의 목소리를 들어 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가장 깊은 질문은 내 안에서 답을 찾을 수 없습니다. 톨스토이처럼 세상이 부러워할 모든 것을 가진 사람도 결국 "왜 살아야 하는가?"라는 질문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 이유를 말합니다.

>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 *(고린도전서 2:9)*

하나님의 지혜는 인간의 경험이나 철학으로는 발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셔야만 알 수 있습니다.

C.S. 루이스는 "태양을 믿는 것은 태양 자체를 보기 때문만이 아니라, 태양을 통해 다른 모든 것을 보기 때문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은 단지 읽어야 할 책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 자신, 그리고 세상을 바르게 보게 하는 렌즈입니다.

또한 성경은 약 1,500년에 걸쳐 여러 저자를 통해 기록되었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의 구원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이것은 성경의 궁극적인 저자가 하나님이심을 보여 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왜 우리에게 꼭 필요할까요?

1. 하나님의 말씀은 기쁨의 원천입니다.

예수님은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약속하셨습니다.

>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 *(요한복음 15:11)*

참된 기쁨은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주님과 동행할 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2. 하나님의 말씀은 성장의 원천입니다.

오랜 신앙생활이 곧 성숙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히브리서는 아직도 젖만 먹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책망하며, 단단한 말씀을 먹는 사람이 영적으로 성장한다고 말합니다.

>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 *(히브리서 5:14)*

듣기 좋은 말씀만 찾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나를 책망하고 변화시키는 말씀까지 받아들일 때 우리의 신앙은 자라게 됩니다.

3. 하나님의 말씀은 인도의 원천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특별한 표적이나 음성을 기다리지만, 하나님은 이미 말씀을 통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 *(시편 119:105)*

말씀은 인생 전체를 한꺼번에 보여 주지는 않지만, 오늘 순종해야 할 '다음 한 걸음'을 비추어 줍니다. 그 한 걸음을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길로 인도받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 **알게 하려 하심이라."**
> *(고린도전서 2:12)*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만 주신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도 함께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단지 지식을 얻기 위해 성경을 읽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마음으로 말씀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소그룹 나눔 질문

1. 최근 내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생각이나 마음이 바뀌었던 경험이 있나요?

말씀 한 구절이나 설교를 통해 위로를 받았거나, 방향을 새롭게 잡게 되었던 경험이 있다면 함께 나누어 봅시다.

2. 설교에서 말씀은 '기쁨', '성장', '인도'의 원천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내 삶에서는 이 세 가지 중 어떤 부분이 가장 필요하다고 느끼나요?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3.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 수 있다고 말합니다(고린도전서 2:12).

혹시 지금 내 삶에서 하나님께서 이미 주셨지만 아직 보지 못하고 있는 은혜는 무엇일까요? 말씀과 성령께서 내 눈을 열어 주신다면, 내가 새롭게 보게 될 것은 무엇일지 함께 깊이 나누어 봅시다.